

논문 25

##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sup>1)</sup>

윤형한\*·이지연\*\*·김나라\*\*\*

### I. 서론

개인이 노동시장의 고용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사회 전반의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자기주도적인 진로관리기술(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skill)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필요성(OECD, 2004; 임연, 2004; 이지연, 2005; 진미석, 2005)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진로지도가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이 두어져 단기적 의사결정을 강조함으로써 생애단계별로 학생에게는 학교나 학과선택, 구직자에게는 취업알선, 그리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승진이나 직무능력의 개발 등과 같이 단기·단편적이고 상호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진미석 외, 2003; 이지연, 2005). OECD(2004)에서도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지도의 방향으로 생애의 한 시점에 제한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애에 걸쳐 진로관리기술을 배양하는, 좀더 폭넓은 개념으로 진로지도가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진로문제의 곤경 속에서 스스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적인 진로관리기술로서 이것이 진로지도의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관리기술을 NCDG(1998)는 진로개발역량으로, 이지연 등(1999)은 진로개발기초능력, 임연(2004)과 진미석(2005)은 기초직업능력이 강조된 진로지도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진로관리기술을 함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진로지도의 성과와 개인의 진로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진로개발 지원이 다양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Wattes, 2003)을 위해 필요하다. 또 진로개발 지원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길러

1) 이 원고는 이지연·윤형한·김나라가 2005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실태 및 과제」 연구의 결과 중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주요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을 높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Watts & Sultana, 2003),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장래의 직업생활과 갖는 관련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경로에 대한 인식을 넓힘으로서 학습동기가 제고되며 나아가 교육적 성취가 높아질 것(임언 등, 2005)이라는 기대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의 일차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개발에 대한 진로지원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진로개발 영향 요인 관련 연구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하여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과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sup>2)</sup>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 연령), 개인심리·특성 변인(생활자신감, 교과효능감, 정서적 안녕감), 학교와 가정의 환경특성 변인, 그리고 학습경험(진로지도) 변인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개인 배경

##### 1) 성별로 진로개발에 대해 견해가 상이함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진로개발에서 주요 변인으로 성(Huffman & Torres, 2001)을 들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빨리 성숙하며 자신에게 적합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Post-Kammer & Smith, 1985), 여학생은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전통적(gender-traditional) 직업을 사전에 잘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Brooks & Betz, 1990 ; Huffman & Torres, 2001)고 하는 견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개발 및 진로결정에서 더욱 성숙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은

2) Krumboltz는 Bandura(1969)의 사회학습이론을 진로결정에 적용하여 학습경험과 의사결정은 상호 의존적이라 설명하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유전적 재질과 특별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들, 학습 경험들, 과제접근기술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와 둘째 요인은 환경적 요인, 셋째와 넷째 요인은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환경 요인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요인으로 진로지도에 의해 변화시킬 수 없는 반면,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 요인은 변화가 가능하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 및 포부와 무관하게 가정과 사회로부터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여(Hollinger, 1991) 성공에 대한 두려움(Noble, 1987), 학업성취 및 진로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Arnold & Denny, 1985), 성공을 자신의 능력보다는 근면성, 노력, 기술로의 귀인(Eccles, 1985) 등에 의해서 진로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Betz와 Fitzgerald(1987)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여학생은 자신의 실제 능력과 수행 결과와는 다른 자신에 대한 지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지각에 대한 불일치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하여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학생은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상태는 여학생들 보다 더 많은 처벌을 경험(Schneer & Reitman, 1990)함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대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 2)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개발의 구체화됨

연령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lenn(1981)과 Sears(1981)는 연령이 낮은 학생들은 미래를 결정한 뒤 그것에 맞춰 자신의 맞추어 가기 보다는 미래를 열어놓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점차 성장함에 따라 결혼과 경제적 독립의 요구가 진로결정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서 대학, 전공, 및 직업들에 대한 진로의 방향은 상당히 불안정하지만 성장해 감에 따라 진로의 방향이 더욱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정운경(2000)은 진로미결정 유형과 학년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고교 1학년이 고교 3학년에 비해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에서 높지만 관심도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더 높다고 하였고, 박종원(2002)은 고교생의 미결정이 대학생의 미결정에 비해 높았지만 고교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결정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나. 심리·정서 특성

### 1) 생활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이 적극적임

생활자신감은 전반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의 자신감으로서 Bandura(1977)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효능감을 개념을 적용하여 생활자신감을 새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특정 과업 수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효능감은 지정된 일을 수행하는데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효능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 2) 교과자신감이 진로개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줌

교과자신감은 각 과목에 대한 자신감으로 앞서 언급한 생활자신감과 마찬가지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교과자신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업효능감을 연구하여 왔으며 학업효능감과 같은 특정 효능감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특정영역의 수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특정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박인영(1999)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효능감간의 상관이 .76으로 높았으나 학업상황에서의 학업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 3) 정서적 안녕감과 진로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음

정서적 안녕감(본 연구에서 불안의 역점수임)은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등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Blustein & Phillips, 1988). Blustein과 Phillips(1988)의 진로탐색과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시의 상태불안이 말기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진로미결정과 불안과의 연구에서는 불안을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보고 있다. 불안과 진로미결정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낸 연구는 없지만 많은 결과들에서 두 변인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성과 홍혜경(1988)의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Profile)에서 높은 상관(.37)을 보여주었으며,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 점수와 불안은 .53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 다. 환경 특성

### 1) 가정환경이 자녀의 진로개발에 적극적인 영향을 줌

가정환경(부모관계, 사회적 지지, 부모 양육방식)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부모의 양육방식 및 애착(attachment)과 같은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말하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자존감 지지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cohen & wills, 1985).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Symonds(1949), Schaefer(1959), Baumrind(1971) 등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 양육태도를 통제(control)와 따뜻함(warmth)의 정도에 따라 부모유형을 권위적(authoritative), 독재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방임적(neglectful)으로 나누어 이중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권위적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 유형이 자녀들과 빈번한 의사소통을 갖고 욕구를 수용해 주는 동시에 확고한 표준과 규칙에 따라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아동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2) 학교의 질적 환경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그동안 진로 관련 연구에서 가정적, 심리적 변인들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학교환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환경과 진로성숙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송영숙(1998)은 학교가 가지는 물리적 시설이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교시설, 진로교육을 위해 마련해 온 교육자료 등에 따라 학생의 진로성숙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고, 이지영(2000)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방침, 직업지도 활동, 동료집단의 성격요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 진로의식 및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효성(2001)은 학교환경 변인 중 구조적 기능 즉, 물리적 환경, 학생 유형, 진학, 취업률과 같은 요인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능적인 환경 변인인 교사와의 친밀도, 상담 받고 싶은 교사의 유무, 교우관계, 서클활동 참여 만족도와 같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라. 학습(진로지도) 경험

진로지도(career guidance)는 각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여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Parsons는 진로지도의 과정을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자기의 능력 및 흥미 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각종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직업 선택과 판단을 돕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Smith(1981)는 주 2시간씩 10주간 실시되는 진로지도 학급 2개를 그렇지 않은 학급과 비교하여 본 결과, 구조화된 프로그램(Chapman, 1976)이 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진로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더욱 진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Johnson 등(1979)은 중학교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주 1시간씩 5주간 계속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태도 지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신봉호(1996)의 중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 수준의 향상, 토의 요령, 발표력, 글쓰기 능력 등이 신장되었다고 하였다. 개인은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적인 진로발달 과정을 겪으며 이에 따르는 일생에 걸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42.2%의 중학생과, 33.4%의 고등학생들이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42.2%의 학생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며, 35.9%의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결국 80%의 학생들이 자신에 진로선택에 대해 준비나 확신이 부족한 형편이다.

## 2. 청소년 진로개발의 성과 관련 연구

진로개발 성과는 진로지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성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자기이해, 진로·직업정보이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진로탐색(자기이해·진로/직업 정보 이해)

진로탐색 행동은 앞으로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self-appraisal)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즉, 진로탐색은 진로선택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후의 적응과 개선을 위하여 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수행하는 활동으로 가치관, 성격적 특성, 흥미, 능력 등 개인의 특징에 대한 평가와 직업세계에서의 선택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기회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 탐색 행동으로 나누어진다(Blustein, 1989;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진로탐색 행동의 선행조건(antecedents)을 구명하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Jordan(1963)은 진로탐색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확장시켜 Stump(1983)와 Harren(197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지향도(goal directedness), 동기화 과정(motivational processes), 진로의사결정 유형, 개인성장 노력(personal growth initiative), 자아정체성, 탐색에 대한 믿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맥락적 불안과 진로탐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두 개 이하의 독립변인만을 고려하였으며 그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동선과 정철영(200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이것 또한 제한적인 변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여 한계를 보여주었다.

### 나.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sup>3)</sup>은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의 과제 및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으로 정의되며,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도구로 제작되어 수량화되었다. 이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 활동, 진로태도(Luzzo, 1993), 자존감(Robbins, 1985) 등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은 진로효능감, 진로관련 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등 통일된 용어로 쓰이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로 지칭한다.

Lent 등(1986)은 공학·과학계열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성취, 전공의 지속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공학계열의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 보다는 학업수행과 더욱 관계가 있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직업흥미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수행간의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공학계열의 전공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은 학업성적과 학문지속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37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 요인과 진로태도 성숙요인은 서로 상관이 .63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확신성 차원이 매우 높은 상관(각각 .57, .61)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태도 총점과 5개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진로결정효능감 점수가 전체의 약 40%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의 학업성취, 학업수행, 학업 지속성, 직업에서의 흥미뿐만 아니라 진로태도 성숙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job seeking self-efficacy)이란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Wanberg, Watt & Rumsey, 1996)을 말한다. 구직효능감은 취업 및 재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ks와 Ashforth(1999)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차 변인의 구직효능감이 졸업시기와 졸업 후 4개월 뒤의 취업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구직효능감은 직업탐색 강도를 높여주어 이것이 졸업 때의 취업상태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anfer와 Hulin(1985)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구직기술에 대한 구직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구직행동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구직효능감이 재취업과 관련될 것이고, 구직효능감이 높고 구직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비자발적 실직 이후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재취업된 사람들과 미취업자간 구직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 III. 연구의 방법

#### 1. 분석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KEEP 1차 조사(중학교 3학년생 2000명, 실업고 3학년생 2000명, 일반고 3학

년생 2000명 총 6000)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성별로, 남학생이 53.6%(3218명)으로 여학생 46.4%(2782명)보다 많다. 중학생, 실업고, 일반고 학생의 성비는 중학생만이 여학생이 약간 많고 실업고와 일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 KEEP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는 %

구분	중학생 (n=2,000)	실업계 고등학생 (n=2,000)	일반계 고등학생 (n=2,000)	합계 (n=6,000)
남학생	996 (49.8)	1,105 (55.3)	1,117 (44.8)	3,218 (53.6)
여학생	1,004 (50.2)	895 (55.9)	883 (44.2)	2,782 (46.4)

## 2. 측정 변수의 기초통계와 신뢰도

### 가. 개인 심리·정서특성 변인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으로는 생활자신감, 교과자신감, 정서적 안녕감으로 각각의 변인에 대한 문항,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개인 심리·정서특성 변인의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

변인		M	sd	Cronbach's α
생활자신감 (a)	춤, 노래, 운동 등에 재주가 있다	2.98	0.94	.70
	리더쉽이 있다	2.91	0.88	
	계	2.95	0.78	
교과자신감 (a)	국어를 잘한다	2.78	0.87	.66
	수학을 잘한다	2.37	1.09	
	영어를 잘한다	2.52	1.00	
	과학을 잘한다	2.44	1.01	
	사회를 잘한다	2.72	1.04	
	음악을 잘한다	2.83	1.06	
	미술을 잘한다	2.62	1.08	
	체육을 잘한다	3.22	1.16	
계	2.69	0.57		
정서적 안녕감 (b)	공부, 성적 문제	2.50	0.76	.70
	진학, 진로문제	2.65	0.75	
	가정의 경제적 형편	1.89	0.72	
	부모님과의 불화	1.51	0.67	
	이성친구 문제	1.43	0.66	
	친구관계	1.43	0.57	
	성격 문제	1.80	0.70	
	외모, 신체 문제	2.00	0.75	
계	3.10	0.40		

주) (a)는 5점 척도임

(b)는 4점 척도이고, 역산한 것임.

나. 환경변인

환경변인은 학교 환경변인과 가정 환경변인을 포함한다. 환경변인은 외적(물리적) 환경변인과 질적 환경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교 외적 환경으로는 학교시설, 학교 질적 환경에는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해당된다. 가정 외적 환경으로는 가계소득, 가정 질적 환경 변인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해당된다. 환경변인에 대한 문항,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교환경변인의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

변인		M	sd	Cronbach's α	
학교시설 (a)	학교 건물과 교실 상태	3.05	0.90	.70	
	컴퓨터, 시청각 시설	3.31	0.97		
	도서실 읽을 책	3.13	1.03		
	운동장 및 체육시설	3.02	0.98		
	학교 주변 환경	3.10	0.91		
	특별실 이용 용이성	2.51	1.05		
	계	3.02	0.62		
학교수업 (a)	수업시간 흥미도	3.13	0.80	.55	
	학생의사 반영	2.82	0.81		
	공부할 분위기	2.82	0.86		
	계	2.93	0.60		
교사관계 (b)	존경하는 선생님	1.24	0.43	.67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1.43	0.49		
	좋아하는 선생님	1.26	0.44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	1.42	0.49		
	계	0.62	1.00		
친구관계(a)	친구관계가 좋다	3.80	0.73	-	
가계소득(a)	가정의 경제적 수준	2.80	0.70	-	
부모관계 (a)	부	의견존중	3.68	0.96	.81
		성적에 대한 관심	3.66	0.97	
		물질적 지원	3.79	0.89	
		대화빈도	3.15	1.04	
		친구관계 인지	2.89	1.04	
	모	의견존중	3.97	0.84	
		성적 관심	4.03	0.88	
		물질적 지원	3.93	0.80	
		대화빈도	3.97	0.90	
		친구관계 인지	3.72	0.97	
	계	3.66	0.59		

주) (a)는 5점 척도, (b) 2점척도(예<1>, 아니오<2>)임.

다. 학습경험(진로지도 경험)

학습경험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을 의미한다. 학습경험 변인에 대한 문항,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학습(진로지도)경험 변인의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

변인		M	sd	Cronbach's α
학교 (a)	진로관련 강연 경험	1.67	0.47	.48
	학교 및 학과 안내경험	1.59	0.49	
	진로관련 검사 경험	1.23	0.42	
	직업체험 경험	1.90	0.30	
	진로상담 경험	1.54	0.50	
계				
가정 (a)	어떻게 살지 대화	1.27	0.44	.62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1.22	0.41	
	직업,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1.15	0.36	
	직업, 학교, 학과 정보 찾기에 대한 대화	1.42	0.49	
	계			

주) (a) 2점 척도(예<1>, 아니오<2>)임.

라. 진로개발 성과변인

진로개발 성과 변인에는 자기이해, 직업정보 이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과 같이 진로지도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변인이 해당된다. 진로개발 성과변인에 대한 문항,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진로개발 성과 변인의 기초통계치 및 신뢰도

변인		M	sd	Cronbach's α	
자기이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	3.31	0.91	.73	
	내가 좋아하는 일 인지	3.68	0.86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	3.55	0.84		
	계	3.52	0.71		
정보이해	진로정보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	3.46	0.80	.77
		요구되는 내신 및 수능 점수 수준	3.49	0.84	
		요구되는 소질과 능력	3.50	0.80	
	계	3.26	0.75		
	직업정보	미래직업-업무 및 근무환경	3.32	0.82	
미래직업-전망 및 보수		3.20	0.87		
계		3.48	0.68		
진로결정 효능감	결단력	계획실천능력	3.15	0.84	.62
		계	3.11	0.81	
	계	3.13	0.70		
구직 효능감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	3.15	0.78		

주) α: 5점 척도

### 3. 분석 방법

첫째, 진로선택 및 발달이론으로부터 개인, 학습, 환경의 변인을 KEEP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둘째, 진로개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성, 학교급)로 진로개발의 차이분석을 위한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개발 성과와 관련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분석(AMOS)을 한다. 모형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sup>4)</sup>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및 학교급별간의 경로계수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은 회귀분석, 변량분석, 그리고 요인분석 등의 다변량 분석기법을 측정변수뿐 아니라 이론변수(latent variable)까지를 포함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변수간의 연결 관계를 가정하고 검증함으로써 변수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제공해 준다. 본 분석을 위하여 한국교육고용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측정변수를 추출하고 필요에 따라서 종합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교사만족도' 는 각각 4개의 이분문항들로부터 MLR<sup>5)</sup>방식으로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심리 특성(생활자신감, 교과효능감, 정서적 안녕감), 환경 특성(학교시설,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가계소득, 부모관계), 학습 경험(학교에서의 진로지도경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과 진로지도 성과변인(자기이해, 직업정보이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의 측정변수를 구조방정식모델에 투입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청소년 진로개발 기초분석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별로 개인 심리·정서특성 변인, 환경특성 변인, 학습경험 변인, 진로개발 성과변인의 네 영역에서 성별, 학교급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한 표본에서만 우연히 발견되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특성이 이론의 개발이나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를 위한 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모델을 다른 표본에 적용시켜 모델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통계기술임.

5) MLR 방식은 Muthen(2004) 등의 Mplus technical appendix에 자세한 사용 기술이 서술되어 있음. MLR 방식과 다른 추정방법들의 관계는 김청택 등(2005)이 이분변수로부터 요인점수를 산출하는 적합한 방식임을 검증되었다. MLR 방식 적용 변인은 학습변인의 가정 진로지도 경험, 학교 진로지도경험, 그리고 환경 변인의 교사관계 문항이 해당된다.

## 가. 개인심리·정서특성 변인에 대한 차이

개인 심리·정서특성 변인이 성별,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한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과자신감과 정서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생활자신감이나 교과흥미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생활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중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교과자신감과 교과흥미를 보였으며, 정서적 안녕감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고생은 정서적 안녕감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lt;표 IV-1&gt; 개인심리·정서특성 변인의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별			F
		남학생	여학생	t	중학생 (a)	실업고생 (b)	일반고생 (c)	
생활 자신감	2.95 (0.80)	2.94 (0.83)	2.95 (0.76)	- .459	2.91 (0.79)	2.92 (0.81)	3.01 (0.79)	9.90*** c>a=b
교과 자신감	2.69 (0.57)	2.71 (0.58)	2.66 (0.55)	3.748***	2.83 (0.58)	2.54 (0.57)	2.69 (0.51)	141.40*** a>c>b
교과 흥미	3.08 (0.61)	3.09 (0.63)	3.06 (0.59)	1.663	3.20 (0.60)	2.85 (0.61)	3.19 (0.55)	230.35*** a=c>b
정서적 안녕감	3.10 (0.40)	3.13 (0.40)	3.07 (0.39)	6.456***	3.12 (0.40)	3.10 (0.40)	3.08 (0.39)	3.90* a=b>c

주) \*\*\* p<.001, \*\* p<.01, \* p<.05

## 나. 환경특성 변인

환경특성 변인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환경 변인에 있어서 어머니의 지지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교급별로는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환경 변인 중 가계소득, 부모관계, 어머니의 지지는 중학생과 일반고생이 실업고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지지는 중학생, 일반고생, 실업고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가정환경의 모든 변인이 실업고생의 경우 중학생이나 일반고생의 가정환경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업고생을 대상으로 부모관계의 밀접도에 따라 상하 30%를 기준으로 밀접 上집단, 下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개발 성과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관계 밀접 上집단이 下집단에 비해 모든 진로개발 성과변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환경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성별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의 시설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 질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급별로 학교시설에 있어서 실업고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수업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일반고생이나 실업고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표 IV-2> 환경특성 변인의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

변인		전체	성별			학교급별			F	
			남학생	여학생	t	중학생 (a)	실업고 (b)	일반고 (c)		
가정환경	외적	가계 소득	2.80 (0.69)	2.80 (0.72)	2.80 (0.66)	-.117	2.91 (0.62)	2.64 (0.74)	2.86 (0.68)	90.59*** a=c>b
	질적	부모관계	3.66 (0.59)	3.65 (0.58)	3.68 (0.59)	-1.816	3.76 (0.56)	3.51 (0.60)	3.72 (0.57)	108.86*** a=c>b
		아버지 지지	3.43 (0.69)	3.44 (0.68)	3.41 (0.71)	1.503	3.54 (0.66)	3.27 (0.70)	3.46 (0.69)	73.10*** a>c>b
		어머니 지지	3.90 (0.63)	3.87 (0.63)	3.94 (0.63)	-4.427***	3.97 (0.61)	3.75 (0.64)	3.98 (0.60)	91.47*** a=c>b
학교환경	외적	학교 시설	3.04 (0.61)	3.02 (0.62)	3.06 (0.60)	-2.649**	2.97 (0.60)	3.10 (0.60)	3.04 (0.64)	20.79*** b>c>a
	질적	학교 수업	2.93 (0.60)	2.93 (0.61)	2.93 (0.58)	.087	3.02 (0.56)	2.86 (0.62)	2.91 (0.60)	38.88*** a>c>b
		친구 관계	3.80 (0.73)	3.86 (0.76)	3.73 (0.69)	7.051***	3.82 (0.74)	3.77 (0.75)	3.80 (0.71)	2.36
		교사 관계	0.62 (1.00)	0.66 (0.99)	0.57 (1.01)	3.049**	0.60 (0.99)	0.67 (0.99)	0.59 (1.02)	2.51

주) \*\*\* p<.001, \*\* p<.01, \* p<.05  
 환경특성관련 하위변인에서 교사관계를 제외하고 5점 척도임. 교사관계는 MLR방식으로 산출된  
 요인점수를 의미함.

다. 학습경험 변인

진로지도 경험 여부 및 만족도를 학교 진로지도 경험과 가정 진로지도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지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은 진로관련 검사(77.1%)가 진로상담(46.3%),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안내(41.4%), 진로와 직업교과 이수(40.7%), 진로관련 강연(33.2%), 그리고 직업체험(10.2%)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진로지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표 IV-3> 참조), 성별에 있어서 진로상담과 학교 및 학과 안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 진로지도 경험이 높았던 진로 관련 검사의 경우 중학생이 고교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및 학과 안내에 있어서 중학생과 일반고생이 실업고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관련 강연이나 직업체험에 있어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에 관련된 대화 경험은 직업/학교/학과선택에 대한 대화 경험이 가장 높았고(84.7%), 이어서 적성/흥미에 대한 대화 경험(78.5%), 어떻게 살지에 대한 대화 경험(73.4%), 그리고 직업/학교/학과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경험(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별로 유사하였다.

<표 IV-3> 학교 진로지도 만족도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

구분	성별						학교급별									합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a)			실업계(b)			일반계(c)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진로 관련 검사	2357	3.07	0.82	2263	3.07	0.78	1528	3.19	0.82	1418	3.03	0.76	1674	3.00	0.81	4620	3.07	0.80
	t=0.24						F=24.80***, a>b=c											
진로상담	1381	3.13	0.78	1397	3.04	0.76	704	3.13	0.74	984	3.09	0.75	1090	3.05	0.80	2778	3.08	0.77
	t=3.104**						F=2.30, a=b=c											
학교 및 학과 안내	1353	3.08	0.74	1133	3.00	0.71	527	3.09	0.68	969	2.99	0.70	990	3.08	0.77	2486	3.04	0.72
	t=2.513*						F=4.72**, a=c>b											
진로와 직업 교과	910	2.70	0.93	717	2.70	0.88				692	2.98	0.79	935	2.49	0.93	1627	2.70	0.91
	t=-.113						F=124.29***, b>c											
직업체험	1068	3.17	0.84	926	3.17	0.74	163	3.29	0.96	321	3.26	0.88	128	3.22	0.87	612	3.26	0.90
	t=-.020						F=0.26, a=b=c											
진로 관련 강연	361	3.27	0.92	251	3.24	0.87	441	3.19	0.80	798	3.14	0.76	755	3.18	0.82	1994	3.17	0.79
	t=.347						F=0.72, a=b=c											

주) \*\*\* p<.001, \*\* p<.01, \* p<.05

<표 IV-4> 가정 진로지도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간 교차분석

단위 : 명(%)

변인		성별		학교급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실업고	일반고	
1순위 : 직업, 학교, 학과선택에 대한 대화	유	2,641 (82.1)	2,442 (87.8)	1,678 (83.90)	1,591 (79.55)	1,814 (90.70)	5,083 (84.7)
	무	577 (17.9)	340 (12.2)	322 (16.10)	409 (20.45)	186 (9.30)	917 (15.3)
2순위 : 나의 적성, 흥미에 대한 대화	유	2,435 (75.7)	2,272 (81.7)	1,553 (77.65)	1,462 (73.10)	1,692 (84.60)	4,707 (78.5)
	무	783 (24.3)	510 (18.3)	447 (22.35)	538 (26.90)	308 (15.40)	1,293 (21.6)
3순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유	2,346 (72.9)	2,055 (73.9)	1,379 (68.95)	1,452 (72.60)	1,570 (78.50)	4,401 (73.4)
	무	872 (27.1)	727 (26.1)	621 (31.05)	548 (27.40)	430 (21.50)	1,599 (26.7)
4순위: 직업,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유	1,808 (56.2)	1,688 (60.7)	931 (46.55)	1,148 (57.40)	1,417 (70.85)	3,496 (58.3)
	무	1,410 (43.8)	1,094 (39.3)	1,069 (53.45)	852 (42.60)	583 (29.15)	2,504 (41.7)

주)  $\chi^2$ 값이 p<.001로 유의함(단, 성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유의하지 않음)

## 라. 진로개발 성과 변인

### 1) 배경변인별 진로개발 성과의 차이

진로개발 성과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진로개발 성과변인(자기이해, 진로정보, 직업정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이해, 직업정보이해, 그리고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정보이해가 높게 나타났다. 구직효능감은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효능감을 제외한 자기이해, 진로정보, 직업정보,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변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 직업정보, 진로결정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진로정보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학교급별로 일반고생이 중학생과 실업고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였다. 즉, 일반고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이해, 진로정보, 직업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효능감과 구직에 대한 효능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진로결정효능감과 구직효능감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실업고나 일반고 학생에 비해 현실적으로 이른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5> 진로개발 성과에 대한 집단 간 변량분석

변인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a)	여학생 (b)	t	중학생 (a)	실업고 (b)	일반고 (c)	F
자기이해	3.52 (0.71)	3.54 (0.71)	3.49 (0.71)	3.113** a>b	3.44 (0.73)	3.41 (0.71)	3.70 (0.66)	98.43*** c>a=b
진로정보이해	3.48 (0.68)	3.45 (0.70)	3.52 (0.70)	-2.617** b>a	-	3.25 (0.66)	3.63 (0.64)	211.22*** c>b
직업정보이해	3.26 (0.75)	3.29 (0.77)	3.24 (0.72)	2.127* a>b	3.19 (0.75)	3.22 (0.76)	3.36 (0.72)	20.17*** c>a=b
진로결정효능감	3.13 (0.70)	3.19 (0.71)	3.06 (0.69)	6.955*** a>b	3.05 (0.69)	3.15 (0.71)	3.19 (0.71)	19.49*** c>b>a
구직효능감	3.15 (0.78)	3.14 (0.80)	3.17 (0.75)	-1.291 a=b	3.07 (0.71)	3.15 (0.80)	3.23 (0.81)	13.47*** c>b=a

주) \*\*\* p<.001, \*\* p<.01, \* p<.05

## 2) 학교 진로지도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의 차이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개발 성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학교 진로지도 경험 횟수<sup>6)</sup>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즉, 학교 진로지도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0)으로부터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집단(5)까지 총 6개의 집단으로 분할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진로지도 경험 여부와 모든 진로개발 성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 진로지도 경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진로개발 성과에 대한 평균이 대체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 진로지도의 경험 여부가 진로개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 진로지도의 경험 여부가 진로개발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교 진로지도 만족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단순한 경험뿐만 아니라 만족스런 학교 진로지도 경험이 진로개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진로지도 경험을 한 집단 중에 5점 척도의 4점 이상을 받은 집단을 만족스런 학교진로지도 집단으로 2점 이하를 받은 집단을 불만족 학교진로지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개발 성과변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런 학교 진로지도 집단이 불만족스런 학교 진로지도 집단에 비

6) KEEP 조사에서는 학교 진로지도 경험으로 여섯 항목을 측정하나 이중 「진로와 직업」 교과 경험의 경우 중학생은 제외됨으로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다섯 가지 항목을 분석하였다.

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진로지도 경험 여부가 진로개발 성과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만족요인이 진로개발 성과에 더욱 중요요소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요자 눈높이에 적합한 진로지도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6> 학교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 변량분석

구분		n	M	sd	F
자기 이해	무경험자(a)	610	3.26	0.72	45.91*** f>e>d>c>b>a
	한 항목 경험자(b)	1,510	3.41	0.71	
	두 항목 경험자(c)	1,722	3.51	0.70	
	세 항목 경험자(d)	1,258	3.62	0.70	
	네 항목 경험자(e)	732	3.72	0.67	
	모든 항목 경험자(f)	167	3.75	0.74	
	전체	5,999	3.52	0.71	
진로정보 이해	무경험자(a)	153	3.18	0.73	21.50*** f>e>d>c>b=a
	한 항목 경험자(b)	483	3.31	0.68	
	두 항목 경험자(c)	742	3.46	0.66	
	세 항목 경험자(d)	657	3.57	0.64	
	네 항목 경험자(e)	411	3.65	0.65	
	모든 항목 경험자(f)	78	3.64	0.69	
	전체	2,524	3.48	0.68	
직업정보 이해	무경험자(a)	320	3.10	0.74	24.59*** f>e>d>c>b=a
	한 항목 경험자(b)	926	3.12	0.74	
	두 항목 경험자(c)	1,128	3.24	0.75	
	세 항목 경험자(d)	869	3.34	0.74	
	네 항목 경험자(e)	538	3.42	0.71	
	모든 항목 경험자(f)	124	3.68	0.70	
	전체	3,905	3.26	0.75	
진로결정 효능감	무경험자(a)	610	3.01	0.68	13.00*** f>e>d>c=b=a
	한 항목 경험자(b)	1,510	3.08	0.71	
	두 항목 경험자(c)	1,722	3.12	0.70	
	세 항목 경험자(d)	1,258	3.17	0.69	
	네 항목 경험자(e)	732	3.23	0.69	
	모든 항목 경험자(f)	167	3.37	0.71	
	전체	5,999	3.13	0.70	
구직 효능감	무경험자(a)	320	2.98	0.73	17.33*** f>e>d>c=b=a
	한 항목 경험자(b)	926	3.05	0.74	
	두 항목 경험자(c)	1,128	3.13	0.77	
	세 항목 경험자(d)	869	3.23	0.79	
	네 항목 경험자(e)	538	3.29	0.80	
	모든 항목 경험자(f)	124	3.52	0.82	
	전체	3,905	3.15	0.78	

주) \*\*\* p<.001, \*\* p<.01, \* p<.05

<표 IV-7> 진로지도 만족 여부에 대한 집단 간 변량분석

구분		표본수	M	sd	F
자기 이해	불만족(a)	625	3.30	0.76	98.89*** a<b
	만족(b)	764	3.74	0.68	
진로정보 이해	불만족(a)	348	3.29	0.72	26.44*** a<b
	만족(b)	607	3.66	0.66	
직업정보 이해	불만족(a)	246	3.05	0.79	25.22*** a<b
	만족(b)	318	3.35	0.76	
진로결정 효능감	불만족(a)	625	3.00	0.73	45.37*** a<b
	만족(b)	764	3.31	0.74	
구직효능감	불만족(a)	348	2.93	0.80	30.49*** a<b
	만족(b)	607	3.27	0.78	

주) \*\*\* p<.001, \*\* p<.01, \* p<.05

3)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가정에서의 진로에 관한 대화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개발 성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정 진로지도 대화 경험 횟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즉, 가정에서 진로에 관한 대화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0)으로부터 네 가지 주제 모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집단(4)으로 총 5개의 집단으로 분할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정 진로 관련 대화 경험 여부는 모든 진로개발 성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진로에 관한 대화 경험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진로개발 성과에 대한 평균이 대체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더불어 가정에서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대화 경험이 진로개발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8> 가정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 변량분석

구분		n	M	sd	F
자기 이해	모든 항목 경험자(a)	2,550	3.72	0.67	142.76*** a>b>c>d=e
	세 항목 경험자(b)	1,698	3.50	0.67	
	두 항목 경험자(c)	964	3.31	0.69	
	한 항목 경험자(d)	465	3.12	0.68	
	무경험자(e)	323	3.15	0.78	
	합계	6,000	3.52	0.71	
진로정보 이해	모든 항목 경험자(a)	1,375	3.63	0.64	54.21*** a>b>c=d=e
	세 항목 경험자(b)	654	3.41	0.63	
	두 항목 경험자(c)	286	3.19	0.64	
	한 항목 경험자(d)	114	3.04	0.67	
	무경험자(e)	95	3.13	0.81	
	합계	2,524	3.48	0.68	
직업정보 이해	모든 항목 경험자(a)	1,919	3.42	0.73	49.90*** a>b=c=e>d
	세 항목 경험자(b)	1,077	3.19	0.72	
	두 항목 경험자(c)	548	3.06	0.70	
	한 항목 경험자(d)	216	2.93	0.73	
	무경험자(e)	146	3.04	0.85	
	합계	3,906	3.26	0.75	
진로결정 효능감	모든 항목 경험자(a)	2,550	3.26	0.71	49.02*** a>b>c=d=e
	세 항목 경험자(b)	1,698	3.10	0.68	
	두 항목 경험자(c)	964	3.00	0.68	
	한 항목 경험자(d)	465	2.93	0.65	
	무경험자(e)	323	2.93	0.75	
	합계	6,000	3.13	0.70	
구직 효능감	모든 항목 경험자(a)	1,919	3.27	0.79	26.50*** a>b=c=e>d
	세 항목 경험자(b)	1,077	3.11	0.73	
	두 항목 경험자(c)	548	2.98	0.76	
	한 항목 경험자(d)	216	2.88	0.76	
	무경험자(e)	146	3.01	0.85	
	합계	3,906	3.15	0.78	

주) \*\*\* p<.001, \*\* p<.01, \* p<.05

## 2. 청소년 진로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진로개발 성과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진로개발 성과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성별과 계열을 1단계로, 개인 심리·정서특성 변인을 2단계, 환경특성 변인을 3단계, 그리고 진로지도 학습경험 변인을 4단계에 투입하여 이들 변인들이 진로개발 성과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가. 자기 이해

생활자신감, 교과자신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가정/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자기이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본 베타값은 생활자신감이 자기이해를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서 자신감이 있을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학교와 가정의 진로지도 경험 역시 자기이해 정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었다.

&lt;표 IV-9&gt; 자기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eta (표준화계수)	t	유의도
통제 변인	성별	0.030	1.675	0.094
	계열	0.125	6.929	0.000***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	생활 자신감	0.185	9.006	0.000***
	교과 자신감	0.095	4.819	0.000***
	정서적 안녕감	-0.009	-0.504	0.614
환경특성 변인	가계 소득	0.007	0.361	0.718
	부모 관계	0.102	5.119	0.000***
	학교 시설	-0.005	-0.254	0.799
	학교 수업	0.022	1.114	0.265
	교사 관계	0.057	3.050	0.002**
학습경험 변인	친구 관계	0.128	6.394	0.000***
	가정 진로지도 경험	0.105	5.692	0.000***
	학교 진로지도 경험	0.087	4.861	0.000***

주) \*\*\* p<.001, \*\* p<.01, \* p<.05

\*통제변인은 성별(남:1, 여:0), 계열(일반고 :1, 실업고:0)으로 더미코딩 하였음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4단계에서의 결과임

## 나. 진로·직업정보 이해

진로·직업정보 이해 중 진로정보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문항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진로정보 이해를 말한다. 먼저, 진로정보와 선행변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교과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교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경우는 자신이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할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생활자신감, 부모관계, 진로지도 경험 또한 진로정

보를 이해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이해와 마찬가지로 생활자신감, 교과자신감이 직업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환경 특성 변인에서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학습경험에서는 가정과 학교 진로지도 경험이 직업정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서 직업정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생활자신감,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순으로 나타나 진로정보와는 다른 순위를 보였다. 즉, 직업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표 IV-10> 진로정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eta (표준화계수)	t	유의도
통제 변인	성별	-0.060	-2.740	0.006**
	계열	0.228	10.545	0.000***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	생활 자신감	0.106	4.222	0.000***
	교과 자신감	0.126	5.187	0.000***
	정서적 안녕감	-0.024	-1.044	0.297
환경특성 변인	가계 소득	0.022	0.978	0.328
	부모 관계	0.130	5.374	0.000***
	학교 시설	-0.023	-0.975	0.330
	학교 수업	-0.006	-0.247	0.805
	교사 관계	0.028	1.228	0.220
학습경험 변인	친구 관계	0.030	1.222	0.222
	가정 진로지도 경험	0.086	3.849	0.000***
	학교 진로지도 경험	0.134	6.121	0.000***

주) \*\*\* p<.001, \*\* p<.01, \* p<.05

\*통제변인은 성별(남:1, 여:0), 계열(일반고 :1, 실업고:0)으로 더미코딩 하였음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4단계에서의 결과임

<표 IV-11> 직업정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eta (표준화계수)	t	유의도
통제 변인	성별	0.030	1.675	0.094*
	계열	0.125	6.929	0.000***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	생활 자신감	0.185	9.006	0.000***
	교과 자신감	0.095	4.819	0.000***
	정서적 안녕감	-0.009	-0.504	0.614
환경특성 변인	가계 소득	0.007	0.361	0.718
	부모 관계	0.102	5.119	0.000***
	학교 시설	-0.005	-0.254	0.799
	학교 수업	0.022	1.114	0.265
	교사 관계	0.057	3.050	0.002**
학습경험 변인	친구 관계	0.128	6.394	0.000***
	가정 진로지도 경험	0.105	5.692	0.000***
	학교 진로지도 경험	0.087	4.861	0.000***

주) \*\*\* p<.001, \*\* p<.01, \* p<.05

\*통제변인은 성별(남:1, 여:0), 계열(일반고 :1, 실업고:0)으로 더미코딩 하였음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4단계에서의 결과임

다.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 개인특성 변인의 모든 변인과 부모 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환경변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개인특성의 생활자신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에서 자신감이 있을수록 진로에 대해서 계획이나 결단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보다는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더욱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12> 진로결정효능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eta (표준화계수)	t	유의도
통제 변인	성별	0.070	3.747	0.000***
	계열	-0.057	-3.051	0.002**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	생활 자신감	0.215	10.177	0.000***
	교과 자신감	0.086	4.215	0.000***
	정서적 안녕감	0.110	5.744	0.000***
환경특성 변인	가계소득	0.021	1.077	0.282
	부모 관계	0.079	3.814	0.000***
	학교 시설	0.005	0.245	0.807
	학교 수업	0.022	1.087	0.277
	교사관계	0.042	2.198	0.028*
	친구 관계	0.062	3.012	0.003**
학습경험 변인	가정 진로지도 경험	0.044	2.322	0.020*
	학교 진로지도 경험	-0.002	-0.106	0.916

주) \*\*\* p<.001, \*\* p<.01, \* p<.05

\*통제변인은 성별(남:1, 여:0), 계열(일반고 :1, 실업고:0)으로 더미코딩 하였음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4단계에서의 결과임

라. 구직효능감

미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갖게 될 수 있을지의 자신감을 묻는 구직효능감은 진로결정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생활자신감, 교과자신감이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진로개발 성과 변인과 달리 환경특성 변인의 교사관계가 중요한 영향 변인이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할수록 구직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직효능감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과 달리 가정에서 진로지도 경험보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표 IV-13> 구직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변인		Beta (표준화계수)	t	유의도
통제 변인	성별	-0.040	-1.760	0.079
	계열	0.007	0.297	0.766
개인 심리·정서 특성 변인	생활 자신감	0.091	3.526	0.000
	교과 자신감	0.133	5.279	0.000
	정서적 안녕감	0.081	3.443	0.001
환경특성 변인	가계 소득	0.033	1.377	0.169
	부모 관계	0.001	0.026	0.979
	학교 시설	-0.025	-1.033	0.302
	학교 수업	-0.005	-0.203	0.839
	교사 관계	0.063	2.692	0.007
	친구 관계	0.056	2.221	0.026
학습경험 변인	가정 진로지도 경험	0.020	0.840	0.401
	학교 진로지도 경험	0.065	2.854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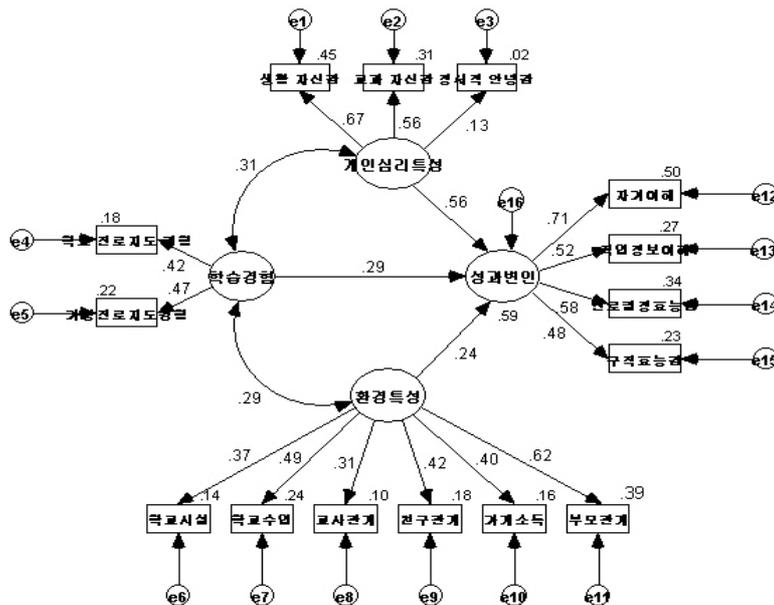
주) \*\*\* p<.001, \*\* p<.01, \* p<.05

\*통제변인은 성별(남:1, 여:0), 계열(일반고 :1, 실업고:0)으로 더미코딩 하였음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4단계에서의 결과임

### 3. 청소년 진로개발의 성과

KEEP의 변인들 중 개인특성 변인, 환경특성 변인, 학습경험 변인, 성과 변인을 선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개인특성변인(생활 자신감, 교과 자신감, 정서적 안녕감)과 환경특성(학교시설,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가계소득, 부모관계)이 학습경험(학교에서의 진로지도경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경험)과 진로개발 성과변인(자기이해, 직업정보이해, 진로 결정 효능감, 구직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IV-1]에서와 같은 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림 IV-1] 청소년 진로개발 성과 모형

가. 청소년 진로개발 성과 모형의 적합성

위에 제시된 모형은 진로개발 성과 변인에 대하여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진로지도 경험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다. 확증적 요인분석의 맥락에서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간의 직접효과를 통제하고 모형을 적합화시켰지만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통계적 기술로 확인하는 것은 모형의 이론적 해석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에서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의 상관을 가정한 기본모형(Default Model)과 기본모형에서의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의 상관계수를 0으로 고정시킨 모델(Model cov=0)의 적합도를 함께 비교한 결과가 <표 IV-14>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것이 모형 자체의 관점이 보다 적합하며 상관계수의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4> 모형의 적합도 지수

Fit Measure	Default model	Model cov=0	포화	독립
Discrepancy	2541.164	3990.631	0	233990.213
Degrees of freedom	84	85	0	120
P	0	0		0
Number of parameters	51	50	135	15
Discrepancy / df	30.252	46.949		1949.918
Normed fit index	0.989	0.983	1	0
Relative fit index	0.984	0.976		0
Incremental fit index	0.989	0.983	1	0
Tucker Lewis index	0.985	0.976		0
Comparative fit index	0.989	0.983	1	0
Parsimony ratio	0.7	0.708	0	1
Parsimony adjusted NFI	0.692	0.696	0	0
Parsimony adjusted CFI	0.693	0.697	0	0
Noncentrality parameter estimate	2457.164	3905.631	0	233870.213
NCP lower bound	2296.323	3702.475	0	232282.241
NCP upper bound	2625.347	4116.051	0	235464.459
FMIN	0.424	0.665	0	39.005
F0	0.41	0.651	0	38.985
F0 lower bound	0.383	0.617	0	38.72
F0 upper bound	0.438	0.686	0	39.251
RMSEA	0.07	0.088		0.57
RMSEA lower bound	0.068	0.085		0.568
RMSEA upper bound	0.072	0.09		0.572
P for test of close fit	0	0		0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2643.164	4090.631	270	234020.213
Browne Cudeck criterion	2643.436	4090.898	270.722	234020.293
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	0.441	0.682	0.045	39.01
ECVI lower bound	0.414	0.648	0.045	38.745
ECVI upper bound	0.469	0.717	0.045	39.276
MECVI	0.441	0.682	0.045	39.01

아울러 분석에서 선택한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차타당화 분석은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분석이며, 이러한 분석 과정은 모형에서 지지하는 가설의 내용을 다른 표본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전제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의 교차타당화를 위해서 자료를 무선적으로 양분하여(3016/2984) 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에 대한 교차타당화는 경로계수와 절편(intercepts) 등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교차타당화 결과, 선택한 모형에 제약조건을 가하여 무선적으로 나눈 두 집단에 적용하였을 때 모형 파라미터의 전반적인 양태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무작위로 나눈 두 집단에서 모형에서 가정하는 요인구조와 진로개발 성과 변인에 대한 회귀계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선택한 모형이 매우 안정적인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타당화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자료의 특정한 편포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잘 기술할 수 있고,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타당한 모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15> 모형의 교차타당화 결과

구분	DF	CMIN	P
Measurement weights	11	7.43	0.763
Measurement intercepts	26	31.582	0.207
Structural weights	29	35.398	0.192
Structural covariances	34	38.211	0.284
Structural residuals	35	39.087	0.291
Measurement residuals	50	53.519	0.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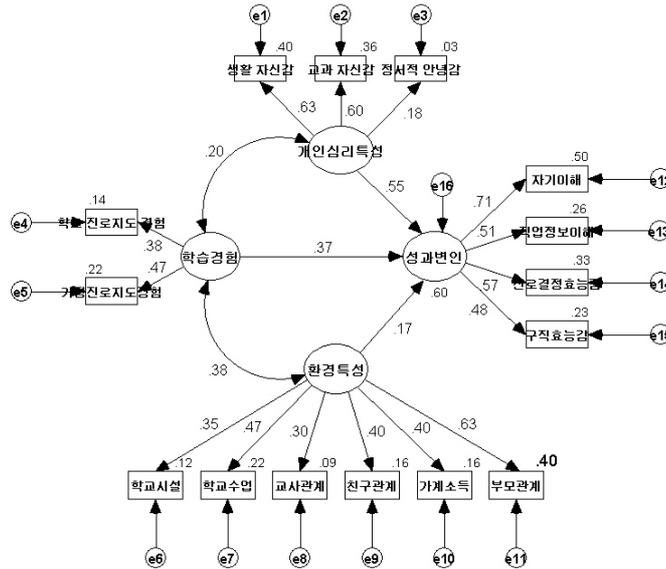
나. 모형에 근거한 성별 및 학교유형간 집단 비교

1)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

경로계수와 절편 등의 값에서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경험과 개인특성, 환경특성간의 상관 값의 패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습경험과 개인 특성간의 상관이 .20이고 학습경험과 환경특성간의 상관이 .38, 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경로계수가 .37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영향력은 작았다. 환경특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컸으며, 학습경험에 대한 개인심리특성의 영향도 남학생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5$ ), 측정변수의 분산에서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라는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 집단에서 더욱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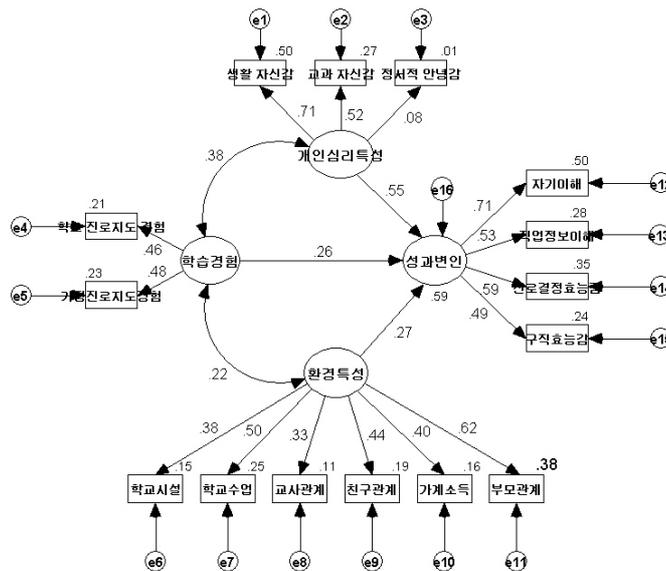
<표 IV-16>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결과

Model	DF	CMIN	P
Measurement weights	11	26.451	.006
Measurement intercepts	26	258.947	.000
Structural weights	29	262.819	.000
Structural covariances	34	280.943	.000
Structural residuals	35	281.002	.000
Measurement residuals	50	380.855	.000



주) Chi-square=4084.857, df=170, p=.000

[그림 IV-2] 모형의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남학생)



주) Chi-square=4084.857, df=170, p=.000

[그림 IV-3] 모형의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여학생)

학습경험과 환경특성의 관계는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p=.599$ ), 학습경험과 개인 심리특성의 관계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p<.001$ ). 또 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경로계수( $p<.05$ )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성과변인에 대한 개인특성의 경로계수( $p=.089$ )와 성과변인에 대한 환경특성의 경로계수( $p=.214$ )에서의 성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본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큰 표본의 크기로 인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분석에서 채택한 모형의 주요한 경로계수들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신뢰로운 해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심리특성과 진로지도에 따른 학습경험간의 관련성이 남학생의 경우 .20이며 여학생의 경우 .38로 나타나 개인심리특성이 진로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로지도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진로개발 성과로 유도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여학생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1차적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녕감을 확인 후 진로지도를 제공하거나, 혹은 여학생의 자신감 취약 부분의 교과목 및 생활영역에 관한 자신감 향상 개입 프로그램을 진로지도에서 함께 다룬다면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유형에 따른 진로개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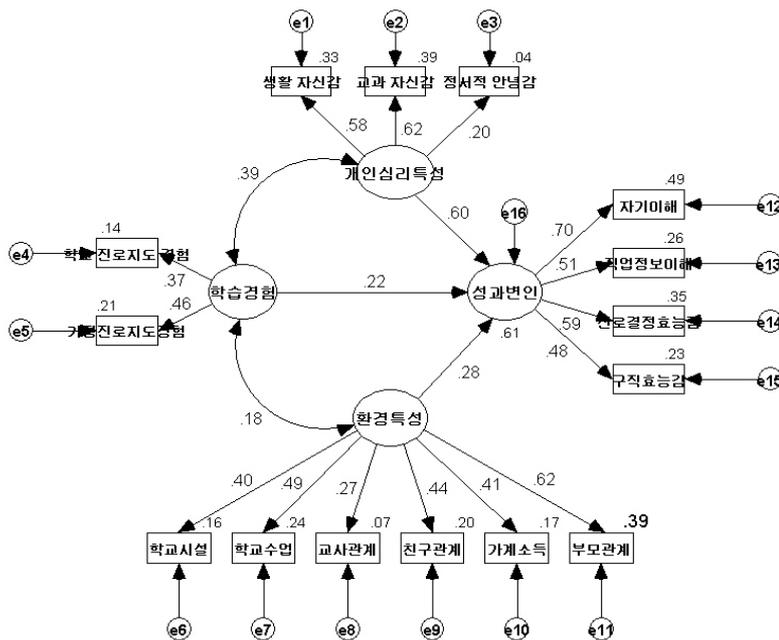
학교유형간의 차이는 경로계수나 절편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경로계수들 중 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영향력을 보면 인문계 고교생,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의 순으로 그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과 학습경험의 관련성은 세 학교유형 모두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학습경험과 환경특성의 관련성은 인문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의 순으로 그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이외 각 집단별로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달리 설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데, 경로계수들뿐만 아니라 절편 등에서 학교 유형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발견되었고, 세 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진로지도 성과변인에 대한 개인특성, 환경특성, 학습경험의 영향력을 위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IV-17> 모델에서의 학교유형간 비교

Model	DF	CMIN	P
Measurement weights	22	60.504	.000
Measurement intercepts	52	1633.280	.000
Structural weights	58	1656.700	.000
Structural covariances	68	1704.692	.000
Structural residuals	70	1705.585	.000
Measurement residuals	100	1991.06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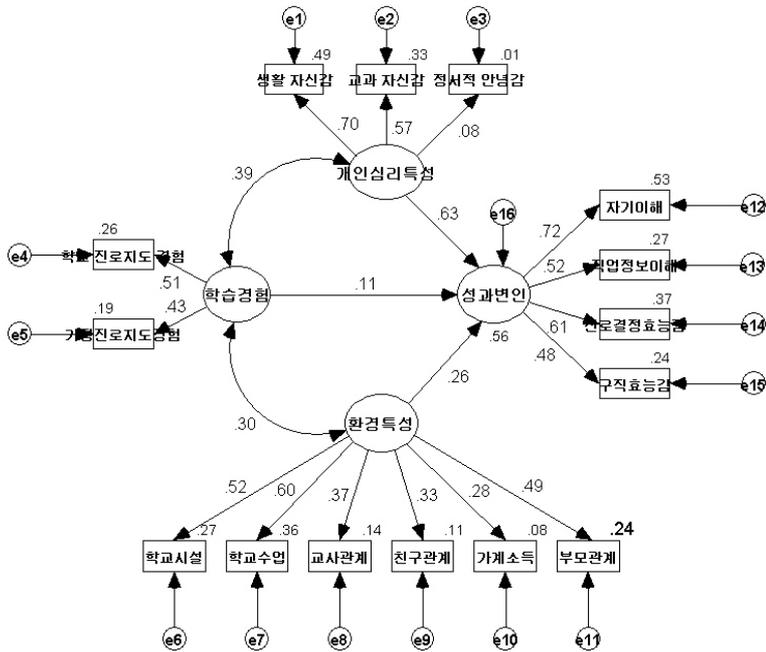
주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성과변인에 대한 개인심리특성과 환경특성, 학습경험의 전체적인 설명량은 거의 동일하지만(중학생 .61/실업고 .56/인문고 .59), 그 영향력의 크기는 집단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성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심리특성의 비중이 가장 크고, 환경특성이나 학습경험의 영향력은 거의 동등하며 개인 심리특성에 비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성과변인에 대한 개인 심리특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학생 집단과 공통점이 있지만, 학습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고교생이라고 하더라도 인문계 고교생의 경우,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교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심리특성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진로지도에 따른 학습경험의 비중이 다른 어떤 집단에서 보다 큰 반면에 환경특성의 영향력은 미미할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p < .001$ ), 세부적인 모델 파라미터들에서도 집단간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대략적인 패턴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이해, 직업정보 이해, 진로결정 효능감, 구직 효능감 등의 진로지도 성과변인에 대하여 학교 시설이나 수업 혹은 가계소득과 같은 환경특성보다는 자신감이나 정서적 안녕감과 같은 개인 심리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공통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지도에 따른 학습경험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진로지도는 현재까지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 있다. 물론 진로지도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진로지도가 직업관이나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 미래 직업 정보 제공 등의 피교육자들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기능교육에만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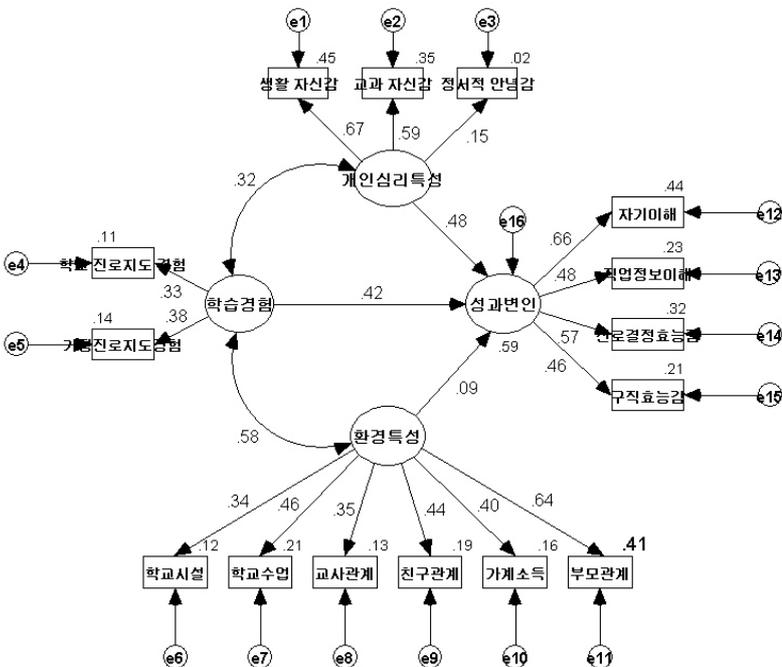
주) Chi-square=4106.461, df=255, p=.000

[그림 IV-4] 모형에서의 학교유형 비교(중학생)



주) Chi-square=4106.461, df=255, p=.000

[그림 IV-5] 모형에서의 학교유형 비교(실업계 고교생)



주) Chi-square=4106.461, df=255, p=.000

[그림 IV-6] 모형에서의 학교유형 비교(인문계 고교생)

&lt;표 IV-18&gt; 모형에서 학교유형간 회귀계수 비교

경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		
			Estimate	S.E.	C.R.	Estimate	S.E.	C.R.	Estimate	S.E.	C.R.
성과변인	<	학습경험	0.319	0.103	3.1**	0.11	0.057	1.924	0.588	0.232	2.532*
성과변인	<	환경특성	0.578	0.097	5.971***	0.426	0.076	5.574***	0.174	0.214	0.814
성과변인	<	개인심리특성	0.654	0.063	10.414***	0.567	0.051	11.066***	0.383	0.057	6.704***
자기이해	<	성과변인	1			1			1		
직업정보이해	<	성과변인	0.772	0.049	15.794***	0.778	0.051	15.2***	0.818	0.056	14.602***
진로결정효능감	<	성과변인	0.801	0.04	20.218***	0.84	0.04	21.109***	0.927	0.051	18.119***
구직효능감	<	성과변인	0.688	0.048	14.456***	0.765	0.054	14.264***	0.862	0.064	13.528***
가정진로지도경험	<	학습경험	0.924	0.149	6.222***	0.564	0.08	7.078***	0.749	0.099	7.558***
학교진로지도경험	<	학습경험	1			1			1		
교과자신감	<	개인심리특성	0.791	0.061	12.953***	0.576	0.04	14.526***	0.571	0.046	12.535***
친구관계	<	환경특성	1.364	0.148	9.221***	0.79	0.098	8.088***	1.437	0.154	9.341***
학교수업	<	환경특성	1.149	0.09	12.818***	1.199	0.075	15.921***	1.249	0.113	11.026***
학교환경	<	환경특성	1			1			1		
교사관계	<	환경특성	1.116	0.153	7.285***	1.179	0.125	9.465***	1.675	0.196	8.554***
부모관계	<	환경특성	1.464	0.162	9.026***	0.941	0.1	9.431***	1.691	0.181	9.337***
정서적 안녕감	<	개인심리특성	0.18	0.029	6.258***	0.057	0.02	2.827**	0.109	0.023	4.752***
생활자신감	<	개인심리특성	1			1			1		
가계소득	<	환경특성	1.071	0.129	8.309***	0.667	0.095	7.034***	1.242	0.149	8.359***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일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개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EEP 일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관련 행동 및 태도, 진로행동 유형의 추이 변화에 대한 분석, 종단적인 인과관계 분석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종단적 변화의 추이 분석의 틀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진로개발 영향 요인 측면

먼저, 성별로 진로개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이해, 직업정보, 진로결정효능감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진로정보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급별 등 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시기와 상태에 따라 고민의 내용은 차별

적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수요자의 성, 학년, 학교유형에 따라 차별되는 내용요소를 포함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이해, 직업정보 이해, 진로결정효능감에 있어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진로정보에 대한 이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에서 성별로 분화된 내용요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여학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라든지, 진로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요소가 남학생에 비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진로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라고 하면 흔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많으나, 본 연구 결과, 가정에서 부모와 진로에 관련된 대화도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더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개발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균형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와 가정에서 진로지도 활동은 단순하게 그러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만족스러워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실업고 학생의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업고 학생의 진로지도에서 학생 본인과 학부모간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진로지도 활동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진로개발 성과 요인 측면

진로지도 성과변인들(자기이해, 진로정보이해, 진로결정효능감, 구직효능감)이 개인심리특성과 환경특성, 학습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지도 성과변인에 대한 개인심리특성 변인이나 환경특성 변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개인심리특성과 환경특성의 상관 또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청소년 진로개발 성과에 대한 학습경험의 직접효과는 개인심리·정서특성과 환경특성의 간접효과와 함께 다른 어떠한 변인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 즉, 개인의 정서적 안녕감이나 학교에서의 생활

등이 자기이해나 구직효능감, 가정에서의 만족이나 성실한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성과변인들에 대한 진로지도 학습 경험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지도가 다른 변인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것, 학교와 가정의 진로지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양적 데이터의 근거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성과 학교급별에 따라 진로지도 성과 변인들에 대한 학습경험의 효과가 약간씩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지도 성과변인에 대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환경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고, 인문고생은 중학생이나 실업고생에 비해 진로개발 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효과가 매우 컸다. 이는 확실적인 진로지도보다는 학교유형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고, 이것은 향후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요소라 여겨진다.

셋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이나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장래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은 학교에서의 강연이나 적성검사 등의 진로지도 경험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위주의 진로지도 교육과 더불어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의 직업정보 및 진로, 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권홍창(2005). latent Trait Scaling method with radial basis kernel for correlated binary responses.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청택(2005). 요인분석과 공분산구조모형, 생애진로개발연구회 발표자료.
- 박인영(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종원(2002).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아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 송영숙(1998).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분석 :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신봉호(1996). 중학생의 진로성숙 수준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효과.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한국심리학회.
- 이지연(2002). OECD 진로정보·지도 및 진로상담 정책 협력사업(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05).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혁신 방안, 평생 진로개발 지원의 현황과 과제(제23차 KRIVET HRD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윤형한·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영(2000). 동료지도학습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혜성·홍혜경(198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0(1). 한국심리학회.
- 이효성(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관련 환경변인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언(2004).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 임언·장홍근·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윤경(2000). 진로상담을 위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 직능원 연구노트 200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2005). 대안적 교육으로서의 진로교육의 재음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 진미석·윤형한(2003). 성인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7인(200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정철영(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 연구 22(1). 한국직업교육학회.
- 탁진국·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논문집 1. 광운대학교 디지털경영연구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Arnold, K. D. & Denny, T.(1985). The lives of academic achievers: The career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valedictorians and salutatoria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Bandura, A, Adams, N. E., & Howells, G. N.(1980). Tests of the generality of self-efficacy theor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4, 30-66.
- Bandura, A.(1977).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
- Blustein D. L.(1990) Explorations of the career exploration literature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 Harren, V. H.(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 Hollinger, C. L.(1991). Facilitat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Roeper Review*, 13(3), 135-139.
- Johnson, R. H.(1978). Individual styles of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 Krumboltz, J. D.(1993). "Integrating Career and Personal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2). 143-148.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 Bridging the Gap*.
- Post-Krammer, P. & Smith, P. L.(1985).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 efficacy, consideration, and interests of eighth and ninth grad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2.
- Sears, S.(1982). A definition of career guidance terms. *A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perspective. Vocational Guidance.

Watts, A. G. & Sultana, R. G.(2003). Career guidance policies in 37 countries : contrasts and common themes. in R., G., Sultana(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Luxembour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